

광주·전남 '집 없는 실움' 더 커졌다

아파트 중심 전세난 심화...다가구·단독주택 월세 위주 재편 2년전보다 보증금 16%·월세 4.5%올라...서민 부담 가중

직장 인근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김모(28)씨는 최근 이사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으나 마땅히 갈 집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아파트는 구하기가 힘들어 다가구나 연립으로 눈을 돌렸지만 시세보다 비싼 것 같았고 순수 전세물건은 거의 없고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내야 하는 준전세가 대부분이어서 부담됐다. 맘에 드는 다가구 주택을 소개 받았지만 보증금 200만원에 40만원 가까운 월세까지 감당해야할 형편이어서 아직 계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순수 전세보다 준전세나 월세가 많아지고 다가구와 다세대·연립 등도 전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오

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수요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다가구·연립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가격 인상 등으로 입주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원룸형이 많은 다가구·다세대 등은 이미 임대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돼 있고, 보증금이 높은 준전세 형태의 계약도 늘면서 월세도 함께 올랐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상반기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반기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 보증금 평균은 3031만원으로 2년 전(2620만원)에 비해 16%가량 상승했다. 또 월세는

37만6000원으로 2년 전 36만원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평균 월세 금액은 각각 37만9000원, 48만3000원이었으며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은 6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연 환산 비율) 역시 아파트가 4.9%, 연립다세대 주택은 7.3%였다. 전세로 살던 집을 월세로 바꿨을 때, 비(非)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 거주자보다 50%가량 월세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의 경우 아파트 월세는 24평형 기준 보증금 1000~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서 45만원, 빌가는 55만원까지 받고 있었다. 이는 보증금이 동일한 수준에 2년전보다 평균 5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다. 원룸형이 많

은 다가구·다세대의 경우도 역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35만원 수준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월세화가 서민·저소득층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월세화에 따른 실질 임대료 상승 폭이 커지면서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低)관리 여파로 주택 임대(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이 과잉상태이고 수요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 임대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비아파트 임대 거래에선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만큼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해 주거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1일 정읍세무서 청사 1층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에서 방문납세자 신고상황을 살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현장 소통' 광주국세청

한동연 청장 세무서 방문...납세자 애로 청취 등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1일 오전 10시 17시 17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고창구를 찾는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청장은 이날 정읍세무서(서장 이준호)를 방문, 청사 1층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에 들러 방문납세자들의 신고상황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납세자

들이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동연 청장은 지난 18일 목포세무서(서장 김기완)를 방문해 경기불황 및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관련 업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본부세관 직원들이 지난 2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무안공항 면세 초과물품 단속

광주세관 다음달 12일까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휴가철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안보위해물품 등의 불법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광주세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재보다 30%상향하고 휴대품에 대한 X-Ray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객구매자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최재호기자 lion@

여수국가산단 증설 6개기업 2조6천억 투자 대형 대부업 710곳 중앙정부가 직접 감독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 입단지 공장용지 증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강호인 장관과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철현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국가산단 공장용지 증설 기공식을 갖고 증설사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1967년 조성이 시작된 여수국가산단은 총면적이 3563만㎡로 산단에 입주한 282개 업체에서 2만명이 근무, 연간 생산액이 86조원에 달한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석유화학 부문 총생산의 47%를 담당

한다.

공장용지 부족은 여수국가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정부는 2013년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유휴지 일부를 해제해 공장용지를 증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인허가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늘어나는 여수국가산단 공장용지 면적은 66만1630㎡로 여기에는 한화케미칼·여천NCC·대림산업·롯데케미칼·GS칼텍스·KPX라이프 등 6개기업이 2조6000여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5일부터 러시안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이 해당된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수준이다.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충·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주식 거래시간 다음달부터 30분 연장

오후 3시30분 폐장...증시 활력 기대

오는 8월 1일부터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정규 매매 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났다.

거래시간 연장이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힌 우리나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증권·파생상품시장과 금 시장의 정규장 매매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증권시장 정규장과 금시장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늘어나고, 파생상품시장 거래 시간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바뀐다. 다만 증권 시장의 경우 거래시간을 30분 줄여 전제 증시 마감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규장 종료 후의 시간의 시장 운영은 2시간50분(오후 3시10분~오후 6시)에서 2시간20분(오후 3시40분~오후 6시)으로 단축된다.

이와 맞물려 증가 단일가 거래 시간,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 시간, 당일결제증권 결제제한 등도 함께 변경된다. 외국인 증개회사들의 외환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된다.

거래소가 2000년 점심시간 휴장(낮 12시~오후 1시) 폐지 이후 16년 만에 거래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장기 침체 양상을 보이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6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4조~5조원대로 정체돼 있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7	20	30	31
33	45	1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034,485,125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7,226,740	47
3	5개 숫자 일치	1,557,416	1,727
4	4개 숫자 일치	50,000	86,066
5	3개 숫자 일치	5,000	1,449,521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ECO

www.yhb.co.kr

PTB7000

PTB5000

PTB-W5000I(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핑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음식점,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아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발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운영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8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08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샷강 다슬기 성업중!!

샷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각종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춘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초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화순읍내 **샷강 다슬기** 만연목포

☎(061)372-8600

H. 010-5308-7045